

원디소프트 '겟앰프드'

온라인에서 즐기는 3D 액션 대전게임 '겟앰프드'

겟앰프드는 흔히 일컬어지는 캐주얼 게임으로 2.5등신의 귀여운 3D 캐릭터들이 허둥지둥 액션을 펼치는 네트워크 대전 게임이다. 얼핏보면 그저 머리 큰 캐릭터들이 우왕좌왕 좌충우돌로 뛰어 다니며 서로 치고 박는 단순한 액션게임으로 볼 수 있으나 게임 내에 들어 있는 코믹한 요소들과 게임 안의 게임들이 얹혀 있어 다양한 재미를 제공한다. 최대 8명까지 참가 가능한 이 게임은 쉬운 조작법으로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고 격투가, 스파이, 초인 등 8가지의 캐릭터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유저 개성에 맞게 캐릭터의 얼굴, 헤어스타일, 체형 등을 자유롭게 만들 수도 있다. 유저가 만든 캐릭터로 겟앰프드 대전에 참가하는 것 또한 다른 게임에서는 볼 수 없었던 재미로 게임 중 깃발 뺏기, 농구, 축구, 풍선 터트리기 게임 등 토너먼트 게임도 즐길 수 있으며, 다양한 무기 아이템 등을 활용해 대전하면 게임을 더욱 박진감 있게 즐길 수 있다.

글 / 신종훈 기자



▲ 3D 네트워크 대전게임 겟앰프드

귀엽고 코믹한 캐릭터

겟앰프드의 캐릭터는 모두 8가지이며, 각 캐릭터마다 능력치와 필살기가 모두 다르다. 특히 머리가 크고 몸통은 비교적 작은 2.5등신으로 그려져 보는 것만으로도 웃음이 나오는 귀여운 캐릭터들이다. 하지만 캐릭터가 귀엽다고 해서 능력치를 얇보다가는 큰코 다친다. 각 캐릭터마다 특성 있는 필살기는 자칫하다가는 한방에 게임을 끝나게 만들 정도로 무시무시하다.

격투가는 무기를 무장하지 않고 맨손으로 싸우는 것이 다른 캐릭터에 비해 자신 있는 캐릭터이다. 평균적인 파워

와스피드를 가지지만 최고 수준의 점프력을 소유한 데다 기술도 전체적으로 다이내믹하고 경쾌하기 때문에 특히 공중전에서는 최강의 기술을 자랑한다. 합계 7연속 공격력을 구사하는 필살기가 돋보인다.

초인은 이름 그대로 압도적이며 신비로운 파워를 가졌다. 하지만 기술이 떨어지기 때문에 공격의 표적이 된다. 파란 폐기라 아이스 슬레브를 이용해 상대를 얼리는 필살기가 인상적이다.

강력한 테크닉과 스피드를 결합한 스파이는 힘과 방어가 매우 낮기 때문에 격투 시에는 타격감이 떨어진다. 하지만 스피드를 살린다면 격투에서도 주도권을 얻을 수 있다. 뒤로 점프하면서 나이프 던지기가 일품인 필살기를 구사한다. 이 캐릭터는 백인과 흑인 캐릭터가 있고 모두 여자이다. 군인은 파워는 평균 이하이지만 테크닉이 뛰어나기 때문에 무기가 없어도 맨손으로도 싸울만한 캐릭터. 하지만 스피드가 떨어지기 때문에 기술도 전체적으로 이동거리가 짧다. 맞으면 폭발하는 수류탄 던지기가 필살기이다.

두꺼운 갑옷을 입어 방어력이 최고인 아머인 갑옷 캐릭터는 스피드와 점프력이 최악이다. 하지만 강력한 무기를 무장한다면 최강의 캐릭터가 될 수 있다. 몸에 입은 갑옷을 벗어 던지는 필살기가 특징이며, 갑옷을 벗으면 속도가 빨라지는 필살기술을 사용한다.

요술공주를 연상시키는 에스퍼는 공격 시 손끝에서 빛이 나온다. 전체적으로 중간 정도의 능력치를 보유하고 있으며 각각의 능력치도 균등한 편이다. 빙그르르 돌면서 꽃을 뿌리는 필살기를 사용한다.

우주여행사는 힘과 기술, 스피드를 겸비한 여자 최고의 전투 스타일이다. 점프는 낮지만, 공중에서의 무영각은 낮은 점프력을 보완하고도 남는다. 기본 외형은 남성적인 올백 스타일. 특수 기술로는, 공중에서의 무영각과 필살기인 회전바람가르기(카마이타치)를 사용한다.

마지막으로 사이버돌쇠는 방어를 포기하고 공격에 목숨을 건 특공 스타일이다. 돌쇠와 같은 저돌적인 공격력과 의외로 빠른 발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죄악의 방어력을 가지고 있다. 배꼽 튀기기와, 날오는 돌쇠 등의 코믹한 전투 동작을 가지고 있다. 필살기로는 전 캐릭터 중 유일한 잡기 공격으로, 들어매치기를 사용한다.



▲ 8가지의 다양한 캐릭터들

미리	눈	코	입	몸	악세사리	무기	기타
번호	구 분	아이템	이 름	사이버머니	학살머니	스파이	
42	무기		눈덩이	700 ₩	N ₩		
41	무기		마법전자루	N ₩	500 ₩		
40	무기		마법봉	N ₩	300 ₩		
39	무기		비주카포2	N ₩	800 ₩		
38	무기		총알없는M16	N ₩	800 ₩		

▲ 머리, 눈, 코, 입, 몸 등을 조합해 자신만의 캐릭터를 꾸밀 수 있다

나만의 아바타 꾸미기

젯艾프드는 기본적으로 무료게임을 표방하고 있으나, 게

임내에서 다양한 아이템들을 구입해 자신의 캐릭터를 꾸밀 수 있다. 이러한 아이템들은 각 캐릭터의 능력치를 올려주기 때문에 적어도 몇 가지 아이템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아이템을 구입하면 머리, 눈, 코, 입, 몸 등을 마음대로 꾸밀 수 있으며, 아이템의 종류가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는 틀린 나만의 개성있는 아바타를 꾸미는 것이 가능하다.

아이템을 사기 위해서는 게임머니와 리얼머니(현금) 등이 필요한데 게임머니는 게임을 많이 할수록 증가한다. 하지만 리얼머니는 충전소를 통해 현금을 주고 구입해야 하는 것도 있다. 이외에도 젯艾프드는 스킨 편집을 통해 아바타를 직접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 게임 화면에서 스킨 편집을 누르면 스킨 에디트가 실행되고, 머리, 얼굴, 몸을 모두 편집할 수 있다.

재미있는 게임내 대전모드

젯艾프드는 총 11가지의 대전모드를 지원한다. 다른 플레이어와 대전할 수 있는 7가지의 토너먼트와 컴퓨터상의 캐릭터와 상대하는 4가지의 챌린지 모드가 있다.

토너먼트는 다른 플레이어와 대전하는 것으로 앤프드 챔피언십, 팀 챔피언십, 데스매치 등 다양한 형식의 대전이 가능하다. 앤프드 챔피언십은 개인전의 스테이지로 여러 경기를 즐길 수 있는 통합 토너먼트로 풍선 터트리기, 깃발 뺏기, 배틀로얄 등이 있다. 이 가운데 배틀로얄은 마지막 한 사람이 남을 때까지 대전을 해 살아남은 플레이어 순서에 따라 순위가 결정된다.

팀 챔피언십은 2개의 팀으로 나누어 대전이 이뤄지는 것으로 각 스테이지마다 다른 경기를 즐길 수 있다. 대전 종류는 챔피언십과 같고, 상대팀이 전멸하거나 먼저 게임을 끝낸 팀이 이기게 된다.

데스매치는 마지막 한 사람이 남을 때까지 대전을 하는 격투 전용 스테이지로 배틀로얄과 마찬가지로 살아 남은 플레이어 순서에 따라 순위가 결정된다. 팀 데스매치는 2개의 팀으로 나누어 대전이 실시되는 격투 전용 스테이지이며, 상대 팀이 전멸하면 대전이 종료된다. 이외에 스포츠 경기를 통해 대전을 벌치는 월드컵과 도그파이트 등의 방식도 있는데, 월드컵에는 축구와 농구, 풍선 터트리기 등이 있고, 도그파이트는 개인전으로 일정시간 가장 많은 상대를 무찌른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다.

컴퓨터 상의 상대와 대전을 펼치는 챌린지 모드에는 공장에 있는 적군들을 물리치는 내용의 앰프드 팩토리와 서울의 뒷골목을 배경으로 한 횡스크롤 형식의 스테이지인 스트리트 챌린지가 있다. 또 격투전용 게임 방식으로 혼자서 또는 여럿이 컴퓨터 상의 캐릭터와 대전을 벌이는 앰프드 챌린지는 고급 유저들을 위한 죽음의 레레이 챌린지 등 다양한 스테이지를 제공해 게임의 재미를 더해준다.

이렇게 다양한 대전게임들을 통해 얻은 포인트는 랭킹에 적용돼 높은 점수를 받을수록 랭킹이 올라가게 된다.



▲ 젯앰프드의 전투장면

키보드를 이용한 쉬운 인터페이스

젯앰프드는 초보 유저들도 쉽게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키보드를 이용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자주 쓰이는 키는 방향키와 점프 V, 약공격 C, 강공격 X, 조준 Z 등이다. 대전 게임에는 당연히 필살기가 존재하는데 Z, X 와 C 키를 조합하면 필살기를 사용할 수 있다. 필살기는 각 직업별 또는 무기별로 다양하며, 이런 필살기들을 하나씩 찾아보는 것도 또 하나의 재미일 것이다.

X와 C를 동시에 누르면 방어를 할 수 있는데 방어를 하면 공격의 데미지를 큰 폭으로 경감시킬 수 있다. 하지만 특정 아이템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방어를 할 수 없으며, 방어 후 타이밍을 잘 맞춰 공격버튼을 누르면 역 공격도 가능하다. X 키는 아이템을 주울 때 이용하는데 이 아이템을 상대방에게 던지거나 공격이 가능하다.

특정 아이템을 들었을 때 필살기를 사용하면 특수 기술이 나가며, 로보트나 탱크 등의 탈 것 위에서 X 버튼을 누르면 탑승도 가능하다.

* 메뉴이동 컨트롤			* 게임 플레이 컨트롤		
	키보드	게임패드		키보드	게임패드
커서이동			플레이어 이동		
결정재정			결정		
취소			취소		
			점프		
			약공격		
			강공격		
			조준		
			방어		
			단축키		없음

▲ 젯앰프드의 인터페이스

18세 이용가 등급 판정 아쉬워

젯앰프드는 기본적으로 코믹하고 귀여운 캐릭터들로 꾸며진 게임이다. 특히 큰 머리를 겨우 지탱하며 이리저리 뛰어다니다 다른 캐릭터를 보고선 주먹과 발을 휘둘러대는 모습과 연속타에서 뿜어지는 커다란 주먹을 맞고서 일그러지는 캐릭터의 표정은 더욱 코믹하다.

이러한 요소들은 게임의 본래 취지와 잘 맞아떨어져 자칫하면 폭력적인 게임으로 갈 수 있는 요소를 코믹함과 어우러져 무자비한 액션이 아닌 재미로 승화될 수 있게 했다. 또 쉬운 인터페이스 덕분에 게임방에 가면 초등학생들이 한 데 모여 게임을 즐기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다.

하지만 윈디소프트가 택한 유료 아이템 판매 방식 때문에 이 게임은 영등위로부터 18세 이상 이용자의 판정을 받았다. 이에 대해 윈디소프트는 승복할 수 없다고 즉각 반발하며 재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젯앰프드가 재심의를 통해 전체이용가의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넥슨의 크레이지아케이드와 같이 현금 충전한도를 설정하는 등의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리나지’ 등 MMORPG가 주도하고 있는 국내 게임시장에 혜성처럼 등장해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젯앰프드가 최근 온라인게임들로 인해 나타나고 있는 사회적인 문제요소들을 뛰어넘어 게임시장의 발전적인 변화에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